



慈藏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위하여

- 남무희, 『한국 계율불교의 완성자-신라 자장 연구』, 서경문화사, 2012

저자 (Authors)	辛善惠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탐구 12 , 2012.12, 385-395 (11 pages) Sogang Journal of Early Korean History 12 , 2012.12, 385-395 (11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탐구학회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Korean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97124
APA Style	辛善惠 (2012). 慈藏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위하여. 한국고대사탐구, 12, 385-39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19 11:2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서 평

慈藏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위하여

(남무희, 『한국 계율불교의 완성자-신라 자장 연구』,
서경문화사, 2012)

辛 善 惠*

I

한국 고대의 불교는 중국에서 전래된 것임에도 당대인들은 이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이 땅의 생리에 맞게 선택·변용을 거듭한 결과, 독특하지만 불교의 정수를 간직한 사상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신라불교사에서 발견되는데, 慈藏은 이 ‘신라적 불교’를 대표하는 고승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신라불교의 대표자로 元曉, 義湘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이는 자장에 대한 사료가 상대적으로 적게 남아 있고, 현존하는 그의 저술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이 그 이유 중 하나라 생각된다.

자장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신라불교사, 특히 그의 政治外交的, 僧政史的 역할의 측면에서 다수 접근되었다. 자장의 전기로는 대표적으로 중국 자료인 道宣의 『續高僧傳』 「唐新羅國大僧統釋慈藏傳」과 같은 책 「唐京師普光寺釋法常傳」, 道世의 『法苑珠林』 「唐沙門釋慈藏傳」이 있고, 국

* 동국대학교 강사

내 자료인 『新羅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와 『삼국사기』 선덕여왕조, 『삼국유사』 「자장정을」 등이 있다. 아울러 『삼국유사』 의해편을 비롯하여 여러 항목에 관련 기사가 단편적으로 실려 있고, 1307년 閔漬가 찬술한 『五臺山月精寺事蹟』의 「奉安舍利開建寺庵第一祖師傅」을 통해서도 그에 대한 기록이 확인된다.

이렇듯 각종 사료가 존재함에도 자장의 생몰년 혹은 나이를 명확히 알려주는 사료는 없을뿐더러, 자장의 출가동기 그리고 입당시기 및 행적 등에 대해서는 내용상의 차이가 발견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서는 자장이라는 한 인물의 생애를 복원하는 1차적인 접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II

본서의 체제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목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론

I. 자장의 생애 복원

1. 자장의 출가와 수행
2. 신라 왕실 및 당(唐) 왕조와의 관계
3. 귀국 이후 활동

II. 『삼국유사』에 반영된 고려 국내 유통 『자장전』의 복원

1. 『삼국유사』에 소개된 『자장전』의 내용 검토
2. 고려 국내 유통 『자장전(慈藏傳)』의 복원
3. 『삼국유사』에서 『자장전』을 수용한 것이 갖는 의미

III. 도선(道宣)과 일연(一然)의 자장관(慈藏觀)

1. 「자장정율」에서 생략한 『속고승전』 「자장전」의 내용
2. 『속고승전』을 계승한 서술에 보이는 일연의 자장관
3. 「자장정율」에 새로 추가된 일연의 자장관(慈藏觀)

IV. 『속고승전』과 『삼국유사』의 기록 비교

V. 결론

저자는 그간 자장에 대한 연구성과가 비교적 많았음에도 인물 연구의 시작이라 할 생물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의 삶과 업적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 이유를 『삼국유사』 등에 남겨진 족적이 지극히 설화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서론에서 밝힘으로써 차후의 연구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전개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서의 핵심은 1장과 2장이라 파악된다. 즉 1장에서는 『속고승전』, 『법원주립』, 「황룡사찰주본기」 등은 1차사료로,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은 2차사료로 분류하고, 『오대산사적기』 등 기타사료를 이용하여 자장 생애에 대한 착종된 사료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고민하였다. 이에 『속고승전』의 80여세 入寂 기록과 『법원주립』의 永徽年間(650-655) 入寂 기록을 취신하여 자장의 생물년을 진흥왕 37년(576)~무열왕 2년(655)으로 규정하고, 출가시기 역시 『속고승전』에 따라 그가 8세 되던 진평왕 5년(583)으로 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오대산사적기』의 자장이 선덕여왕의 出仕命을 거부한 당시 나이가 25세라고 한 기록을 진평왕대로 수정하여 이해하였다.

한편 진평왕대에 활동했던 또 다른 고승인 圓光의 행적과 비교하여 자장이 당시 왕의 출사권유를 거부했음에도 제거되지 않고 이후 신라 불교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위치에 오른 이유로 그가 銅輪系, 즉 진평왕 계열의 왕실과 연결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러한 그의

위상은 入唐 후 당 왕조의 환대나 당시 당 불교계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던 法常에게 戒를 받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도 주장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1장에서 다룬 자장의 생애복원은 자장과 관련한 제반 사료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사회상에 맞게 자장활동의 시기 및 내용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후 저자는 사료 중 『삼국유사』에 다른 인물보다도 자장과 관련된 기록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점을 토대로 고려 국내에 유통되었을 「자장전」의 존재를 상정하였는데, 2장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분석과 복원을 시도하였다.

즉, 자장과 관련된 『삼국유사』 기록 중 「迦葉佛宴坐石」조에는 「자장전」이 언급되었으나 그에 해당되는 내용이 『속고승전』이나 여타 사료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海東高僧傳』의 황룡사 관련 부분에도 「자장전」이 언급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당시 고려 국내에서 유통되던 「자장전」을 일연이 검토, 인용하였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자장의 행적이 초기에는 관음신앙과 연결되었지만 후에는 오대산신앙과 연결된 점에 의문을 가졌던 저자는 고려 유통 「자장전」이 자장의 입적 후 그의 재평가 작업의 일환으로 정리되어 신라말 고려초 오대산신앙의 유행과 궤를 같이하여 성립되었던 점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즉 신라말에 오대산신앙이 유행하면서 평생 문수보살을 친견하고자 노력한 자장의 행적이 새롭게 조명되었고, 「자장전」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일연은 이러한 「자장전」을 참고하였으므로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자장의 행적은 오대산신앙이 부각되어 기록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1장과 2장이 자장의 생애, 행적과 관련한 제반 사료 간 상이점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기술된 부분이라면, 3장과 4장은 주요 사료인 도선의 『속고승전』과 일연의 『삼국유사』의 인용관계 및 서술방식 등을 비교해 봄으로써 자장 당대, 그리고 사후의 그에 대한 평가와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3장에서는 일연이 『속고승전』에서 인용하지 않고 생략한 부분을 검토하여 이를 통해 일연의 자장에 대한 인식, 즉 ‘慈藏觀’을 설명하였다. 생략된 부분은 크게 저술활동과 관련된 부분과 자장의 입당 후 종남산에서의 생활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속고승전』에는 자장에게 여러 경전, 계율과 관련된 『疏』 10여 권과 『觀行法』이라는 저술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자장은 입당 시 法常으로부터 보살계를 받으면서 『攝大乘論』의 사상을 수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는 이 두 사실이 생략되었는데, 저자는 이를 일연이 자장의 대표적 업적을 ‘定律’에 두고자 한 자장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일연의 자장관은 자장의 종남산 생활 시 귀신들을 항복시킨 사건을 기록한 『속고승전』의 내용에 대해 『삼국유사』에 “말이 번거로워 신지 않는다”고 생략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고 한다. 즉 도선 당대는 道佛논쟁이 한창인 시기로, 도선은 당태종의 도교우선정책에 대한 불만을 외도세력(귀신)과 자장 간의 대립에 투영시켜 기술하였지만, 신라에서는 그러한 논쟁이 없었던 바, 일연은 그 부분을 생략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삼국유사』에 『속고승전』을 인용한 부분을 통해서도 일연의 자장관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부분은 신라에 불법이 들어온 시기에 대해 도선은 “靑丘에 불법이 들어온 지 100년”이라고 年數를 명확히 밝힌 반면, 일연은 “佛敎東漸 雖百千齡”이라고 함으로써 정확한 시기를 알지 못하도록 한 점이다. 전자의 경우 100년 전인 진흥왕 10년(549) 입학승 覺德이 梁나라 사신과 함께 불사리를 갖고 귀국한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도선은 중국 불교의 영향 속에서 신라불교, 나아가 자장의 행적을 조명하고자 하였다면, 일연은 귀국 이후 자장이 신라 국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를 부각시키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해당 내용을 고쳤던 것으로

로 해석하였다. 이렇듯 일연은 『속고승전』의 내용을 당대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 따라 생략 혹은 수정·인용하고, 당대 고려에 유통되고 있던 자장 관련 자료들을 정리·보완함으로써 자장의 행적을 재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속고승전』과 『삼국유사』 두 사료 간 인용관계 분석은 마지막 4장에서 좀 더 미시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앞서 1~3장의 자장의 생애복원 내지 일연의 자장관 서술 시 근거로 제시된 사료분석의 건들을 재정리한 장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부분의 사료 원문을 표로 비교, 제시한 부분은 이후 자장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III

이렇듯 본서는 자장에 대한 제반 사료 간 차이점에 대해 정치하게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자장의 행적을 사료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고, 사료 정리자들의 자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본서는 자장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연구총서가 되기에는 몇 가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먼저 평자는 글을 읽을 때 혹은 쓸 때에 ‘사료’에 대한 비교 등의 검토를 우선으로 하는 습관에 따라 목차 중 4장의 내용이 먼저 눈에 띄어 그 부분부터 읽어가기 시작했다. 역시나 이렇게 읽어가니 『삼국유사』와 『속고승전』이라는 대표 사료 간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자장의 생애, 그리고 기록자들의 자장관 등 본서 주요내용의 틀이 잡혀가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본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료라 할 수 있는 고려 국내 유통 「자장전」의 존재에 대해서도 상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본서가 주로 사료

분석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만큼 사료 분석의 장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되었어야 될 듯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서의 대표적인 논지는 자장의 생몰년을 규명한 부분이다. 저자는 576년~655년이라는 명확한 생몰년을 제시하였는데, 이후 이를 근거로 자장의 출가, 출사, 입당시기 등을 명시한 만큼 본서의 주요 논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자장의 입당나이는 63세로, 이미 신라 불교계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어, 입당 후 빠른 기간에 당대 중국에서 최고의 고승이었던 法常에게 보살계를 받았던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된다. 또한 귀국 후에도 황룡사구충탑, 통도사 계단 등과 같은 대규모 공사를 일으킴에 왕실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준 점도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제시한 생몰년 규명의 근거는 불명확하다. 즉 『속고승전』에서 제시한 80여세 입적기록을 ‘80세’로, 그리고 『법원주림』의 永徽年間(650-655) 입적기록을 永徽 말년인 ‘655년’으로 재단하였고, 小學의 나이에 출가하였다는 『속고승전』의 기록 역시도 소학이 8세를 전후한 나이를 가리킴에도 ‘8세’로 규정하였다. 저자 역시 이러한 맹점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당대의 사회상에 맞게 자장의 행적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사료 간의 착종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대산사적기』에서 자장이 선덕여왕의 출사권유를 거부한 기록을 진평왕대의 사실로 본 후, 그가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동륜계 왕실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본 점 역시 재고를 요한다. 먼저 『오대산사적기』에 자장이 출사를 거부한 나이를 명확히 25세로 기재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기존 연구에서는 선덕여왕 즉위부터 자장이 입당하기 전인 608년~614년경에 자장의 나이가 25세였을 것으로 보았다(남동신, 「자장의 불교사상과 불교치국책」 『한국사연구』76, 1992; 김복순, 「선덕여왕과 자장법사」 『신사조로서의 신라불교와 왕권』, 경인문화

사, 2008). 그러나 저자는 생몰년에 맞춰 자장에게 출사를 권유한 인물은 선덕여왕이 아닌 진평왕으로 수정인식하였는데, 『오대산사적기』가 다른 사료에 비해 사료적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으나 자장의 전기 중 유일하게 나이가 적혀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자장이 동륜계 왕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은 그가 귀국 후 황룡사구층목탑의 건립을 舍輪系인 龍樹에게 맡겼던 점과 선덕여왕대 복식개혁 등의 정치개혁 실천을 김춘추와 함께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補論이 필요하다. 저자 역시 자장과 김춘추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립적으로 보는 관점을 부정하며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였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렇게 본다면 단지 왕의 명령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자장을 동륜계 왕실과 연결시켰던 앞의 주장과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장 이외에도 惠宿과 같이 당대 왕의 출사권유를 거부했던 승려들이 존재했던 점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본서에서 주안점을 둔 부분은 고려 유통 「자장전」의 복원이라 할 수 있다. 『삼국유사』가 당대에 존재한 자장 관련 자료들을 섭렵하여 인용 혹은 생략하며 정리하였다는 점에는 기존 연구자들도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본서에서 「자장전」이 자장 당대의 기록인 『속고승전』보다 늦은 시기에 성립됨으로 인해 신라말 고려초의 불교계 변화에 따른 내용의 보완, 윤색이 있었을 가능성을 상정한 것은 자장과 오대산신앙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점에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연은 자장 당대의 기록인 『속고승전』의 내용은 생략하거나 수정하기도한 반면, 윤색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자장전」, 특히 오대산과 관련한 자장의 행적 부분은 우선하여 인용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천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연 당대의 사상경향을 살펴보는 것과 아울러 오대산신앙과 맞물린 「자장전」의 성립시기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오대산신앙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자장의 문수신앙과 그 이후 나타

나는 오대산신앙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구분해보면서 8세기 성립설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으므로(박미선, 「신라 오대산신앙의 성립시기」 『한국사상사학』28, 2007), 저자는 막연히 신라 하대 성립설에 동의하는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오대산신앙과 「자장전」 성립에의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고려 유통 「자장전」의 ‘복원’이라 칭한 만큼 『삼국유사』와 『오대산사적기』의 해당원문을 발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용별로 하나의 텍스트로 구성하였다면 「자장전」의 존재와 체제가 더욱 부각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본서가 연구사적 의의를 가지는 부분 중 하나는 일연이 上古·中古·下古로 신라를 시기구분하고, 특히 법흥왕대를 중고시대의 시작으로 삼은 점을 道宣의 중고시대 인식과 비교한 주장이다. 즉 도선은 『속고승전』에서 자장이 살던 시대를 중고시대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가 인식한 중고시대는 『속고승전』 서문에 의하면 인도에서 성립한 불교가 중국에서 꽃을 피운 시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일연은 김부식이 이미 『삼국사기』에서 3시기 구분법을 제시하였음에도 그것을 따르지 않은 채 도선의 역사인식을 받아들여 불교가 신라에서 처음 공인되는 법흥왕대부터 중고시대의 시작으로 본 것이다. 이는 일연의 시기구분법을 기존에 『삼국사기』의 3시대법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신라사에서의 불교부분을 보유하고자 중고기를 설정한 것으로 파악한 연구(김복순, 「『삼국유사』 「홍법」편과 중고기의 설정」 『경주사학』19, 2000)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삼국유사』의 편찬에 중국 고승전류의 영향이 다분했음을 본다면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장의 枯骨觀과 관련하여 당대에 보편적 수행법이 존재했으리라는 주장 역시 주목된다. 자장의 수행법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중고기말~중대초에 활동했던 원효가 조용한 곳에 머물며 戒를 지키는 것을 止觀 수행의 조건으로 간주하면서도 자신만의

해탈을 추구하여 산속에 머물거나 자신의 수행을 사랑하는 승려들을 비판하였다는 점을 통해 중고기에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고골관과 같은 苦行的 수행법을 지양되어야 할 방법론으로 여겼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원효는 불교의 대중화라는 신라 중대 불교계의 지향점을 기준으로 禪定을 수행하더라도 중생 교화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김영미, 『신라불교사상사연구』, 민족사, 1994; 정병삼, 「신라불교의 수행법과 그 현대적 의미」, 『가산학보』10, 2002), 자장으로 대표되는 시기의 수행법에 대해 비판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IV

저자는 『원측의 생애와 유식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구려 승랑 연구』를 비롯하여 꾸준한 인물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본서를 내놓았다. 그런 만큼 기존의 자장 연구 상의 보완점과 상이점을 인물의 생애와 행적이라는 흐름에 맞춰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본서를 통해 자장 사후 신라불교계의 사상적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전기자료의 편찬으로, 『삼국유사』에 실린 그의 행적이 신라 하대 재평가 작업의 산물인 고려 유통 「자장전」을 참고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자연스럽게 신라 하대 및 고려 시대 자장의 재평가 배경, 나아가 자장의 문수보살 친견신앙과 한국 오대산 신앙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장을 계율불교의 완성자라고 정의하였으나 본서를 통해서는 일연이 자장의 ‘定律’ 행적을 강조하고자 하였다는 점 이외에는 신라불교계의 계율 성립에 있어서 자장의 구체적 역할과 관련된 내용이 소략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자장에 대한 정당한 평가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 저자 역시 동의하

고 있는 바이므로 차후의 순차적 연구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